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VIOLET

가제 : 시베리아 횡단 급행 열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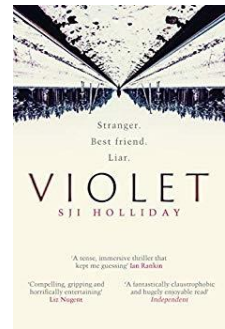
저자 : SJI Holliday

출판사: Orenda Books

발행일: 2019년 9월 14일

분량 : 276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정교함을 닮은 어둡고도 훌륭한 심리적 스릴러이다. 또한 킬링 이브의 팬들이라면 당연히 좋아할 것 같은 소설이다.” – 『Victim of Innocence』의 저자 마이클 우드

낮선 여행지에서 만난 두 여자 캐리와 바이올렛은 함께 시베리아 횡단 급행 열차를 타고 떠나는 긴 여정을 함께 하기로 한다. 하지만 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서로가 원래 알았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느새 둘 사이에는 알 수 없는 질투와 은밀한 욕망이 싹트게 된다.

한 남자가 죽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곁에서 바이올렛은 덜덜 떨고 있었다. 얼마 뒤 그녀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또 다른 남자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경찰 대신 자기를 불렀는지 물었다. 바이올렛은 러시아 경찰들은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니 대신 그에게 연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올렛은 그에게 바닥에 누워있는 시체를 보여주며 얼른 그 시체를 처리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그는 음흉하게 웃으며 바지를 내렸다. 바이올렛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은 다 캐리를 만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몇 달 전, 태국 여행 중 남자 친구 샘과 영영 헤어지기로 하고 혼자 베이징에 온 바이올렛은 여전히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바이올렛은 배낭여행을 다 끝내고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 샘과 함께 베이징으로 와서 시베리아 횡단 급행 열차를 타고 둘만의 여행을 하길 바랐지만 샘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아무 계획 없이 대마초나 피며 태국에서 사귀어 어울려 거기서 좀 더 방탕한 생활을 즐기길 원했다. 이에 화가 난 바이올렛은 샘과 이별을 결심하고 여기까지 혼자 오게 된 것이다. 바이올렛은 일단 원래 계획했던 대로 시베리아 행 티켓을

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베이징 국제 터미널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한 곳이었고 사람들에게 물어 티켓 판매소를 찾아 다녔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좌절한 바이올렛은 베이징 국제 호텔로 걸음을 옮겼고 이 낯선 도시에서 샘을 대신해줄 새 친구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바로 그 때 바이올렛의 눈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호텔 소파에 앉아 있던 그녀는 금발에, 영국식 영어를 쓰고 있었는데 6개월 전 예매했던 러시아 행 열차 티켓을 환불 받기 위해 여행자 센터의 중국인 직원과 실랑이 중이었다. 바이올렛은 금발의 그녀를 보자마자 단번에 그녀가 자신과 같은 배낭여행자이자 또 다른 자기 자신이라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바이올렛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여행자 센터를 떠나 바로 가고 있는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자신을 ‘캐리’라고 소개한 여자는 무작정 자기에게 다가온 바이올렛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둘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캐리는 술을 좀 과하게 마시긴 했지만 유쾌한 사람이었고 바이올렛은 그런 캐리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캐리는 원래 친구와 베트남, 태국을 돌며 여행 중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혼자 베이징에 오게 되었고 그 때문에 친구 뒤흔었던 시베리아 행 티켓 한 장을 환불 받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올렛은 이런 인연에 놀라움을 느꼈지만 아직 낯선 그녀에게 되도록이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둘은 지나간 연애사와 여행에 대한 얘기로 술자리를 이어갔고 만난지 하루만에 제법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다. 바이올렛은 결국 충동적인 결심이긴 했지만 몽골을 거쳐 시베리아까지 가는 티켓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캐리의 제안을 덩석 수락했다.

다음날 둘은 아무 문제 없이 기차에 올라탔다. 바이올렛은 객실에 앉아 안내사항을 듣던 중 문득 걱정스러운 마음에 캐리에게 이 기차에서도 불시에 짐 검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먼저 물었다. 그러자 캐리는 껄껄 웃으며 과거에 암스테르담에서 파리로 가는 기차 안에 몰래 마약을 양말에 숨겨 댔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이올렛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모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긴 여행을 하기로 했는지 깨달았다. 게다가 캐리는 같은 여자가 보기에든 성적인 호기심을 갖게 될 만큼 어딘가 위험해 보이는 유혹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 바이올렛은 잠든 그녀의 모습을 은밀한 시선으로 관찰하기 시작했고 샘에 대해서는 점점 잊어가게 되었다. 반면에 캐리는 바이올렛이 같이 여행하기엔 편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녀를 그저 순진하고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촌뜨기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고 기차에서 만난 러시아 남자에게 관심을 쏟느라 정신이 없었다. 바이올렛과 캐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이 여행을 이어나갔고 둘 사이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질투, 소유욕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 죽은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야기가 진행 될수록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심리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수시 할러데이 (SJI Holliday)는 과학자이자 다섯 권의 베스트셀러 범죄 소설을 쓴 작가이다. 전작으로는 『Banktoun Trilogy (series)』, 『The Deaths of December』, 『The Lingerin』가 있다.

제목 : DAUGHTERS OF SMOKE AND FIRE

가제 : 화염 속에서 태어난 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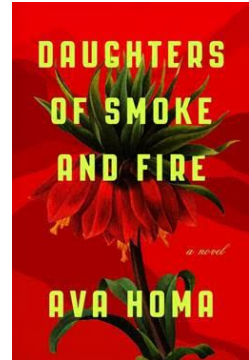
저자 : Ava Homa

출판사: Harper Perennial(UK), The Overlook Press(US)

발행일: 2020년 5월 1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한 가정의 역사를 통해 쿠르드족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소설**

쿠르드족 출신 여성 작가가 쓴 최초의 영어 소설인 이 책은 한 젊은 여성이 어느 날 사라진 동생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고 자유를 되찾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이란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 출신 소녀 라일라는 좌파 인사인 아빠와 아빠의 혁명 동지인 조아나, 그리고 그녀의 아들 실러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얼마 후, 병원에 있던 라일라의 엄마는 라일라의 동생인 치아를 출산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조아나와 실러를 집에서 쫓아냈다. 엄마는 그저 아이들과 남편이 더 이상 위험에 처하는 일 없이 새 식구와 함께 단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동생 치아는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고 라일라는 이제 아홉 살이 되었다. 집안의 암울한 상황은 동생이 태어난 그 해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아빠는 여전히 거실에 누워 작년에 살해된 자신의 동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신이 나간 듯 중얼거리고 있었고 엄마는 그 이야기를 못들은 척하며 치매에 걸린 그녀의 엄마에 대해 하소연 중이었다. 엄마는 자신과 자식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정치적인 문제에만 빠져있는 아빠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한편 라일라는 이곳의 대부분 여자들과는 달리 히잡을 쓰지도 않았고 가끔 허리가 노출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매일 같이 이런 불행 속에 있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일라는 여느 때처럼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 아빠, 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때마침 라디오에서는 베를린 어느 레스토랑에서 쿠르드족 출신 이란 당 대표가 살해당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라일라와 치아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곧 바로 아빠의 얼굴을 살폈다. 아빠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침묵으로 일그러지고 있는 중이었고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아빠의 심적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두 남매는 아빠를 위해 일부러 그 자리를 피했다. 치아는 라일라에게 왜 그토록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쿠르드인들을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라일라는 누군가가 쿠르드인들의 땅을 빼앗으려 한다고 대답해주었다. 라일라는 동생의 표정을 보며 그가 벌써부터 철이 들었다는 것을 느꼈다.

다시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라일라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어서 대학에 들어가 졸업 후 직업도 얻고 돈을 모아 카메라를 자신만의 영화를 찍고 싶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라일라가 제법 숙녀 티가 나기 시작하자 어린 시절 내내 일하느라 바빴던 엄마는 이제서야 라일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라일라의 엄마와 아빠는 테헤란 대학에서 만났고 엄마는 지적인데다 정의감에 불타는 아빠 바바에게 한눈에 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후 바바는 가정 생활보다 쿠르드족이 처한 정치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점점 라일라의 엄마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정치적인 문제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동안 라일라를 임신한 엄마는 홀로 그 외로움과 두려움에 맞서 살아야 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라일라의 아빠는 살아 남아 감옥에서 풀려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치아가 태어났다. 치아가 태어난 지 얼마 안되었을 때만해도 바바는 그래도 좀 괜찮은 상태였다. 하지만 치아가 걸음마를 떼고 점점 자라나자 바바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마저 잃어버렸다. 결국 엄마는 육아부터 생계까지 모두 홀로 책임져야만 했다. 라일라는 지난 시절 동안 역사적 문제로 고통받은 것이 아빠 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도 그 역사의 희생자였던 것이다.

8월의 어느 늦은 저녁, 바바는 신문지 뭉치를 옆구리에 끼고 들어왔다. 라일라는 아빠의 실망스러운 얼굴을 보고 자신이 지원한 대학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챘다. 라일라는 아빠에게 다가가 신문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아빠는 신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오늘 쿠르드인 난민 캠프에서 또 사고가 일어났다는 말만 중얼거렸다. 라일라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너무 지겨워서 분노가 치밀 지경이었다. 라일라는 아빠의 손에서 신문을 뺏아채고 방으로 들어갔다. 라일라는 신문을 보고 자신이 가고 싶었던 국립 대학에는 떨어졌지만 사립 대학교에는 합격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대학 등록금은 라일라네 가족이 결코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이윽고 오늘도 어김없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는 집안일은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라며 엄마의 불만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엄마는 아빠에 대해 쌓일 대로 쌓인 울분을 터뜨리는 중이었다. 두 사람은 라일라가 대학에서 떨어진 게 각자 서로의 탓이라고 주장했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쓸모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라일라를 시집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런 라일라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건 오직 동생 치아뿐이었다. 치아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곧잘 하는 학생으로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아빠의 영향 때문인지 사회적 정의와 쿠르드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 치아는 점점 사회 정의를 위한 활동들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테헤란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라일라는 실종된 동생을 찾아내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고 동생과 관련된 일을 온라인을 통해 기고하기 시작했다. 라일라는 곧 자신조차 위태로워질지 모른다는 위협을 감지하게 된다. 라일라와 동생은 재회 할 수 있을까? 쿠르드인들의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쿠르드의 비극적인 현실과 그들의 정체성, 가족간의 유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아바 호마 (Ava Homa)언론인, 활동가이자 소설가이다. 그녀의 단편 소설 『Echoes from the Other Land』는 프랭크 오코너 문학상 후보로 지명된 바 있다.

제목 : THE DISAPPEARED

가제 : 사라진 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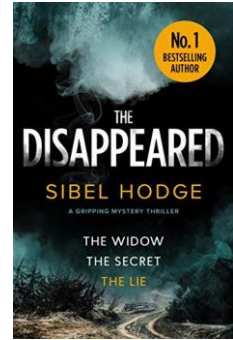
저자 : Sibel Hodge

출판사: Bloodhound Books

발행일: 2019년 1월 3일

분량 : 324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맥박이 빨라지고 아드레날린이 온 몸으로 퍼지게 만드는 위험한 책."- 「릴렉스 앤 리드 북 리뷰」

어느 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에게서 온 편지, 니콜은 그 의문의 편지를 근거로 남편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남편이 죽지 않고 정말 살아있다면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사라진 남편과 남편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기로 결심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니콜 팔머는 열 달 전 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억지로 일에 파묻혀 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메이슨 팔머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롬베 (가상 도시)에 의료 봉사 활동을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설상가상으로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은 지역 반군들의 요새와 가까운 지역이었고 외부인들이 출입하기엔 위험했던 터라 니콜은 남편의 시신조차 찾아 볼 수 없었고 결국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남편을 허망하게 보내야 했다. 어느 때처럼 일찍 잠에서 깨어 하릴없이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던 그녀는 집에 온 우편물들을 차례로 보던 중 유난히 눈에 띄는 갈색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니콜은 호기심에 서둘러 그 봉투를 뜯어보았고 그 봉투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메이슨의 사진이었다. 니콜은 누가 이런 사진을 보내 장난을 치는 것인지 불쑥 화가 치밀었다. 좀 이상한 점이 있다면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턱수염에 덮여 있었고 니콜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머리가 길었다. 게다가 그는 아프리카 어느 도시도 영국도 아닌 바르셀로나에 있는 것 같았다. 니콜은 좀 더 자세히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남편은 한 카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듯 했고 놀랍게도 어렵듯이 보이는 신문에 새겨진 날짜는 불과 이틀 전 날짜였다. 니콜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사진이 사실이라면 남편이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니콜은 곧 사진 뒷장에서 ‘어떤 일이든 끝이 나기 전까지는 냄새가 나는 법이지, 곧 내가 또 연락 할 테니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줘.’라고 적힌 메시지를 발견 했다. 사실 이 메시지는 니콜과 메이슨만 이해할 수 있는 암호로 쓰여진 글귀였다. 니콜은 남편이 이 사진을 보낸 것이 확실하다고 여겼지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8천 피트 상공에서 날고 있던 비행기가 추락 사고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게다가 사고가 일어난 지 열 달 만에 이제서야 남편이 전화도 아닌 편지로 연락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니콜은 재빨리 남편의 비행기 사고와 관련 된 새로운 뉴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색해보았지만 아무런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니콜은 여전히 그 사진 생각뿐이었다. 니콜은 혹시 이 사진이 합성된 것은 아닌지 남편과 바르셀로나에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번에 편지로 받은 남편의 사진 속 배경의 장소와 비슷한 곳은 과거의 사진들 속에는 전혀 없었다. 니콜은 점점 정말 이 사진을 남편이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니콜은 남편이 사망한 당시 나룸베 시 경찰청장이 보낸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니콜은 직접 남편의 시신 수습 과정에 진전이 있었는지 물어보기 위해 편지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경찰청장 모우사 담바 역시 아직 반군들 때문에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상황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니콜은 남편의 동료로부터 메이슨이 나룸베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깝게 지냈다는 또 다른 동료 아드마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하지만 아드마는 니콜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녀는 직접 남편의 사망 직전 흔적들을 추적하기 위해 통신사에 남편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놀랍게도 통신사가 보내 준 파일에는 남편이 탄 사고 비행기 이륙 시간 이후에도 남편이 아드마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한편 나룸베에 있는 아드마는 자신이 섬기는 신 알라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아드마는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실종되거나 죽어갔다. 나룸베의 대통령은 돈과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고 경찰청장 모우사 담바는 비밀리에 반란군과 접촉하며 쿠데타를 계획 중이었다. 하지만 모우사 역시 그저 권력을 쟁취하는 데만 혈안이 된 또 다른 악마에 불과했다. 그는 의학 센터에서 일하면서 목격했던 수많은 아동 납치 사건, 강간 사건 등을 떠올렸다. 모우사는 자신의 비밀을 알아챈 그의 동료인 메이슨까지 죽여버렸다. 아드마는 신의 법칙마저 적용되지 않는 이 곳이 점점 두렵게만 느껴졌다. 바로 그 때였다. 어떤 남자들이 갑자기 그의 집에 쳐들어오더니 그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모우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메이슨의 행방을 묻고 있었다. 아드마는 메이슨을 공항까지 잘 데려다 주었고 그는 그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우사는 메이슨이 그 날 그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분명 아드마가 그를 어디론가 빼돌렸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모우사는 그를 잔인하게 고문하기 시작했다. 모우사는 혹시 메이슨의 아내마저 이 모든 사실을 알아낸 후 어디엔가 그를 숨겨둔 것은 아닌지 물었다. 하지만 아드마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할 뿐이었다.

니콜은 마침내 남편에게서 온 두 번째 편지를 받게 되고 그가 말한 장소로 나갔다가 블레이드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납치 당하고 만다. 메이슨은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 니콜은 남편의 실종 뒤에 나룸베라는 한 나라의 거대한 음모와 비리가 얽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치열한 두뇌싸움과 액션이 점철된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시벨 호지 (Sibel Hodge)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Look Behind You』, 『Untouchable』, 『Duplicity』, 『Into the Darkness』 등의 저자이다.

제목 : THE SOUTHERN BOOK CLUB'S GUIDE TO SLAYING VAMPIRES

가제 : 피묻은 북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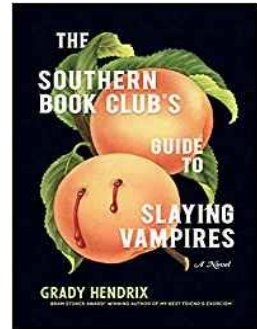
저자 : Grady Hendrix

출판사: Quirk Books

발행일: 2020년 4월 7일

분량 : 408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어느 날 한 낯선 남자가 마을에 나타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실종되자 이 마을의 북클럽 여성 회원들이 그의 뒤를 캐며 벌어지는 이야기.

1988년 11월, 서른 아홉 살 패트리샤 캠벨은 정신과 의사인 남편 카터와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그녀의 고충이라면 일에 바빠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남편을 대신해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열두 살 딸 코리와 이제 막 열 살이 된 아들 블루 역시 늘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었고 패트리샤는 결국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간호와 육아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그녀를 위한 유일한 보상은 최근 병원에서 승진한 남편의 애정 어린 몇 마디와 굿나잇 키스뿐이었다. 순종적이고 단아한 그녀의 유일한 취미 역시 고상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서양문학읽기 모임에 나가는 일이었다. 하지만 원래의 취지와 달리 이 독서모임은 어느 새부턴가 고상함 따위는 던져버리고 점점 더 재미있고 비밀스러운 모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패트리샤는 친구들과 책을 읽는 대신 값싼 와인을 마시며 실제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이나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북클럽의 핵심 멤버들은 따뜻하고 사교적인 키티, 진지하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 슬릭, 흠잡을 데 없이 온화한 그레이스, 황당무계한 말들을 놓는 메릴린이었다. 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라는 공통 분모와 함께, 연쇄 살인범의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었고 덕분에 이들은 빠른 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중 패트리샤의 시어머니의 치매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패트리샤가 시어머니 옆에 24시간 동안 바짝 붙어있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키티는 요양보호사인 우르술라 그린을 패트리샤에게 소개시켜주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어느 봄 날 북클럽 회원들은 연쇄 살인범인 찰스 맨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에 대해 이야기 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다. 그들은 모임에서 책 이야기를 하던 중 이웃인 세비지 부인의 집 앞에 주차 된 하얀색 밴 차량과 낯선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밴과 남자의 정체가 아마도 꽤 나이가 많은 세비지 부인을 돌보기 위해 멀리서 조카가 왔을 것이라고 결론 짓고 그 날 모임을 파했다. 모임 후 집에 돌아온 패트리샤는 늦은 밤 쓰레기 분류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바로 그 세비지 부인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 노인이 패트리샤의 귀를 물어 뜯은 것이었다. 패트리샤는 이 한밤중에 그렇게 나이가 많은 여자가 자신을 왜 공격했는지 도통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다음날 패트리샤는 지역 장례식장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메리 엘렌으로부터 세비지 부인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의사들은 그녀의 사인을 두고 광견병이나 치매일지 모른다고 추측했지만 사실 그녀의 피에서는 독극물이 검출 되었고 그녀의 허벅지 안쪽에는 이상한 외상이 있었다. 하지만 세비지 부인의 조카는 무슨 일인지 장례식도 열지 않고 그녀의 시신을 바로 화장해버렸다. 패트리샤는 전날 일로 마음이 째째하긴 했지만 세비지 부인의 조카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그가 있는 부인의 집을 찾아갔다. 마침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패트리샤는 부인의 집으로 조심스럽게 집안에 들어가 준비해간 음식만 두고 나오려고 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빈집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침실 문이 활짝 열려있었다. 패트리샤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 그 방 침대에 한 남자가 죽은 듯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놀란 패트리샤는 그 남자가 다시 정신을 차릴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막상 깨어난 그 남자는 마구 화를 내며 그녀를 쫓아내려 했다. 패트리샤는 그 남자가 바로 세비지 부인의 조카인 제임스 해리스이며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죽은 듯이 잠에 들어있었던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부끄러워서 재빨리 그 집안을 나왔다. 패트리샤는 집에 가는 길에 그 남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던 것을 계속 떠올렸고 미친듯이 두근거리는 심장을 잠재우기 위해 애를 썼다. 며칠 후 제임스는 패트리샤의 집으로 찾아와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패트리샤의 남편 카터에게 자신이 가진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말을 불쑥 꺼냈다. 그러자 카터는 제임스에게 패트리샤가 속한 북클럽의 멤버 중 한 멤버의 남편이 부동산 개발 쪽에서 일하고 있으니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독서모임에 참여해보라고 권했다. 그 후 그는 패트리샤네 가족과 가까워 지게 되었고 저녁식사까지 같이 하게 되었다. 저녁식사가 다 끝나갈 때쯤, 패트리샤의 시어머니인 메리가 갑자기 나타났고 제임스를 호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메리는 그에게 사라진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며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패트리샤와 가족들은 메리의 치매 증상이 유독 심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그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제임스는 패트리샤에게 자신이 사실 지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신분증도 없는 상태지만 은행 계좌를 하나 열고 싶다고 은행 업무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다음 그는 패트리샤에게 약 85,000달러의 돈이 담긴 가방을 보여주었다. 제임스는 이모가 돌아가신 후 지하실에 이모가 가방에 담아둔 돈을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트리샤는 순간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 느낌을 무시하고 제임스가 그 돈을 비밀리에 계좌에 입금시킬 수 있도록 은행 계좌에 공동 서명을 해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실종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패트리샤를 포함한 독서모임 회원들은 제임스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메리는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독서모임 회원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그레디 핸드릭스 (Grady Hendrix)는 2014 년 베스트셀러 소설 『Horrorstör』로 유명한 작가이자 언론인이며 시나리오 작가이다.

NON-FICTION

제목 : COMEDY OF ERRORS

가제 : 웃는 인간과 진화론

저자 : Jonathan Silvertown

출판사: Scribe

발행일: 2020년 9월

분량 : 약 100 페이지

장르 : 과학



*** 인간이 왜 웃는 존재가 되었는지 진화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

우리 모두 재미있는 것을 보거나 기분이 좋으면 웃음을 터뜨리게 된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웃음은 비자발적인데다 전염성까지 가진 독특한 행위이다. 심지어 아직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는 갓 태어난 아이도 활짝 웃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또한 웃는 행위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인간 고유의 습성이다. 이러한 웃음의 특징들은 웃음이 바로 우리의 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준다. 웃음이 뇌와 관련 된 본능적인 행위라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웃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행위였기 때문에 발달 했을 것이다. 진화 과정에서 우리는 왜 웃는 존재가 된 것일까? 진화 생태학 교수인 저자 조나단 실버타운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 이유에 대해 파헤쳐 본다.

저자는 먼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왜 웃기다고 느끼는 지 설명한다. 모든 코미디의 필수 요소는 바로 오류이다. 셰익스피어 작품에도 역시 오류를 이용한 코미디적 요소가 잘 나타나있고 지난 천 년 동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또한 유머와 오류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왔다. 영국의 훌륭한 음유시인들 역시 로마의 극작가였던 플라우투스의 '오류의 코미디'라는 작품의 줄거리를 차용해 더 극적인 희극을 만든바 있다. 하지만 21 세기 과학에서는 플라우투스나 셰익스피어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코미디적 사실들을 발견 했다. 오류는 그저 희극적인 요소를 극대화 하기 위한 줄거리 장치 그 이상이며 인간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이유의 본질 그 자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저자는 인간의 뇌에 이러한 오류를 감지 하기 위해 특화 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다. 오류는 인간의 인식체계가 어떤 상황을 처리 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상이 발생하면 뇌는 이를 재미있는 일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웃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발견은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과학계와 예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일으켰다. 이 책은 바로 그 예기치 못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실 과학계에서도 웃음 즉 유머와 인간의 진화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생물 학자들은 인간이 유머를 즐기도록 진화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유머를 즐기고 웃음

을 통해 행복감을 가지게 될수록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코미디를 사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진화심리학자 로빈 던바는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침팬지와 다른 갈래의 개별적인 인간 종으로 분리되자 우리 생활을 하는 또 다른 동물로서 집단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요소를 모색하다가 웃음을 그 원동력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인간들은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침팬지처럼 서로의 몸을 손질해주던 행위가 더 이상 개체 간의 애정도와 결속력을 높이기엔 비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쉽고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감정인 웃음을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유대인의 농담이나 광고, 일상 생활 속에서 활용 되는 다양한 유머 코드를 과학적,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분석하여 인간의 진화와 웃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목차>

- 제 1 장 : 코미디와 오류
- 제 2 장 : 유머와 마음
- 제 3 장 : 노래와 춤
- 제 4 장 : 간지럼과 놀이
- 제 5 장 : 미소와 파도
- 제 6 장 : 웃음과 섹스
- 제 7 장 : 농담과 문화

<저자 소개>

조나단 실버 타운 (Jonathan Silvertown)은 에든버러 대학교의 진화 생태학 교수이다. 최근 저자인 『DINNER WITH DARWIN』를 포함해 생태 및 진화와 관련 된 여러 책을 쓴 바 있다.

제목 : AFTERSHOCKS

가제 : 계속되는 여진 속에서

저자 : Nadia Owusu

출판사: Sceptre(UK), Simon & Schuster(US)

발행일: 2020년 8월 20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2019년 와이팅 어워드 (Whiting Award) 논픽션 부문 수상작**

이 책의 저자인 나디아 오우수는 뉴욕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자 소수 인종들을 위한 공공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도시 설계자이다. 그녀는 남들과 조금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저자가 겨우 두 살이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갓난아기인 여동생과 가족을 남겨두고 탄자니아를 떠나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불행히도 그녀가 열세 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아버지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자와 동생은 자신들을 냉혹하게만 대하던 새 어머니와 함께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고 말았다.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이탈리아 로마,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가나의 쿠마시, 우간다의 캄팔라, 영국 런던 등 다양한 국가들을 오가며 성장했다. 때문에 저자는 세계 여러 나라를 고향이라 여기며 자랐고 덕분에 여러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새로운 곳으로 갈 때마다 새로운 정체성과 언어를 습득해야 했고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해야만 했다. 그녀의 부모님 또한 저자만큼이나 독특한 삶을 산 사람들이었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삶 역시 저자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유엔 기구에서 일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원래 아산티 왕족의 후손인 가나인이었고 15년동안 가족의 연을 끊고 그녀와 동생을 버리고 떠나 살던 그녀의 어머니는 아르메니아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아르메니아인이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간 후 홀로 두 자매를 키워 준 저자의 새어머니는 탄자니아인이었는데 어머니 장례식 차 고국에 돌아갔다가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결국 자매에게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미국으로 갔던 저자의 친어머니는 아르메니아계 소말리아 미국인과 재혼했고 저자는 열여덟 살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미국으로 갔다.

이제 서른 여섯 살이 된 저자는 인생의 각 순간마다 자신에겐 국적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텅 빈 존재라고 느끼며 살아왔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안에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너무나 많은 슬픔과 하나로 특정할 수 없는 복잡한 정체성, 어머니가 돌아나 되는 상황 때문에 압도되는 감정으로 가득한 세월을 보냈다고 회고하고 있다. 저자는 이 균열과 부유하는 정체성 속에서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온몸으로 체험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이처럼 저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 우간다의 에이즈 퇴치역사부터 시작해 가나의 기구한 역사, 식민주의의 폐해, 탄자니아 등 다양한 아프리카

대륙의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다양한 문화권과 환경을 오가며 영원히 계속 될 것만 같은 지진처럼 불안했던 과거와 그 잔해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단단한 인생의 뿌리를 찾아가는 한 사람의 놀라운 회고록이다.

<목차>

첫 지진

재정착등록양식

지진의 전조 증상

엄마와의 재회

아픔들

파란색 의자

파란색 의자

Day 0

타이포그래피

배꼽

사진

식민주의적 세계관

핏속에 흐르는 트라우마

(이하 생략, 대 제목 14개로 구성)

<저자 소개>

나디아 오수 (Nadia Owusu)는 작가이자 도시 계획 가로, 인종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 단체인 리빙 시티에서 일하고 있다. 전작인 『LUMINA』는 2017년 뉴욕타임즈 선정 논픽션 부분 2를 차지한 바 있다.

제목 : WITH ALL DUE RESPECT

가제 :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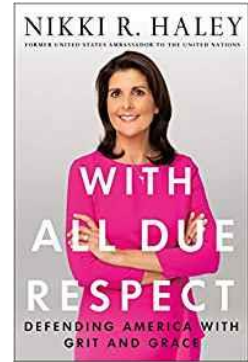
저자 : Nikki R. Haley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9년 11월 25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인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흔들림 없이 원칙과 사명을 지키고 국내 및 국제 정치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외교관이자 분열된 미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가 들려주는 트럼프 정부의 비하인드 스토리**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기도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전·현직 관료들이 잇따라 회고록을 출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토대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 전 대사 또한 이 책을 통해 백악관의 비화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2024년 대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헤일리 전 대사는 이 회고록을 통해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틸러슨 전 장관과 켈리 전 실장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과 함께 행정부 내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으로 불렸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힘을 합쳐서 번덕이 심한 좌충우돌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제시켜 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대통령과 끝없는 마찰을 빚었고 끝내 경질 되고 말았다. 켈리 전 실장은 이에 대해 자신은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조언을 했을 뿐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 회고록을 통해 바로 이 두 사람이 나라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일에 동참하라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틸러슨 전 장관과 켈리 전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것은 불복종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이대로 가다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공개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에 대통령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대통령 앞에 가서 의견을 피력하라고 말했다고 고백했다. 저자는 당시 두 명의 행정부 핵심 인사가 대통령을 무력화 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아울러 그런 방식의 회유 시도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뜻에도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한다. 이어 그녀는 틸러슨 전 장관이 매우 고압적인데다 사람의 진을 다 빼놓는 사람이었다고 묘사했으며 켈리 전 비서실장의 경우 자신이 대통령에게 접근하려는 이유를 언제나 수상쩍게 여겼다고 말한다.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요할 경우 합당한 정치적 행위 내에서 그의 의견에 대해 날카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자신은 이란 핵합의(JSPOA)와 파리기후변화협정,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등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의 의사 결정을 적극 지지했지만 동시에 자신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차이로 불화를 겪었던 몇몇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실제로 그녀는 지난해 7 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렸던 미·러정상회담 이후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찾아가 그가 블라미디르 푸틴을 공개적으로 두둔했던 것과 2017 년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발생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폭동에 대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시각과 대처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여과 없이 솔직하게 폭로하고 있는 이 글은 벌써부터 세계적인 호평을 얻고 있다. 여러 이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굵직굵직한 국제 문제들과 비극적인 주요 사건들에 대한 저자의 섬세한 접근 방식과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위기에 처했을 당시에도 흔들림 없이 유엔 대사직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그녀의 자신감과 강직함이 돋보이는 회고록이다.

<목차>

- 제 1 장. 찰스턴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 제 2 장. 깃발이 내려 온다
- 제 3 장. 트럼프에게 의지하고 있는 나라
- 제 4 장. 유엔에서의 새로운 날
- 제 5 장. 리스트 만들기
- 제 6 장. 빨간 선과 독재자
- 제 7 장. 최대 압력
- 제 8 장. 문화를 변화시키기
- 제 9 장. 에코 챔버 너머로
- (이하 생략, 총 13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니키 헤일리 (Nikki Haley)는 2017 년부터 2019 년까지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재직했다. 그 이전에는 2011 년부터 2017 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역임 한 바 있다.

제목 : FEMINISMS: A Global History

가제 : 페미니즘의 세계사

저자 : Lucy Delap

출판사: Pelican list

발행일: 2020년 8월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역사



*** 유럽, 미국 백인 중심의 페미니즘 사에서 벗어나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페미니즘의 양상과 역사에 대해 살펴보는 책**

페미니즘은 그 어떤 운동보다 포괄적이고 세계적인 운동이다.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듯이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현재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된 야심찬 운동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은 어떤 경로를 거쳐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인 걸까? 전세계 페미니스트들이 이론 성취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페미니즘의 세계사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역사학자인 이 책의 저자 루시 델랩은 페미니즘은 심오한 역사적 변화에 관한 '현재 진행중인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과거의 페미니즘이 여성 해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정치적인 운동이었다면 새로운 시대의 페미니즘은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서 여성들이 겪는 일상적인 불평등에 대항하는 운동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다양한 세계사적 순간들 속에서 그에 따른 특정한 관심사가 각국의 페미니즘 운동의 특성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 책은 민족주의, 종교 교리, 제국주의, 유토피아주의, 인종적 사고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이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단순한 페미니즘의 역사가 아닌 페미니즘의 '세계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사실 페미니즘의 출발 지점과도 관련이 있다. 페미니즘의 역사는 종종 유럽을 중심으로 한 백인 여성들의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설명되어왔다. 17세기 유럽 페미니스트들 중 아프라 벤과 사라 피지는 여성을 노예계급으로 인식했다. 이들은 주로 개신교의 종교 전통에서 비롯된 여성의 영적 평등 개념에서 페미니즘적 영감을 얻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노예'의 범주에는 아메리카 대륙과 카리브해의 농장에서 말 그대로 사유 재산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예 여성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페미니즘의 역사 속에서 3세계 여성이나 하층 계급에 속해 있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살고 있던 여성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묵살 되어왔다. 따라서 저자는 유럽을 벗어나 광범위한 관점에서 각국에 모자이크 조각들처럼 흩어진 다양한 운동들과 페미니즘 운동에 헌신한 개인들에 대해 주목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페미니즘적 담론과 유명 저작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해왔는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저자는 일반적인 역사서와 달리 지난 2 세기 동안의 페미니즘 역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역사적 관점으로 그 동안 잊혀지거나 주목 받지 못했던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를 좇아간다.

이 책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을 받았던 일본의 페미니즘 역사부터 시작해 러시아, 이집트, 독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라에서 일어난 페미니즘적 사건들과 사례를 바탕으로 같은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해서 늘 같은 양상만을 보여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이 책은 페미니즘의 이러한 다양한 역사적 발자취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날의 페미니즘적 토론과 논쟁에 더 깊이 있는 관점을 제공해주는 페미니즘 역사서이다.

<목차>

★ 8 개의 챕터로 구성 될 예정

<저자 소개>

로시 델랩 (Lucy Delap)은 페미니즘, 계급, 종교 및 성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사회 및 문화 역사가이다. 2007 년 출간 된 『The Feminist Avant-Garde』 는 2008 년 'Women's History Network Prize'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목 : THE POWER OF FASTERCISE

가제 : 페스터사이즈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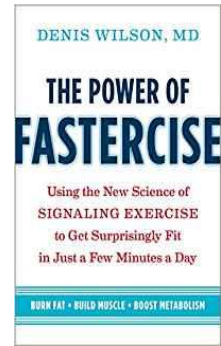
저자 : Denis Wilson

출판사: Chelsea Green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11월 1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건강



★ "윌슨 박사는 이 책에서 소량의 힘과 의도적으로 저항을 일으키는 운동법이 어떻게 단 시간내에 우리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 베스트셀러 『Move Your DNA』의 저자 케티 바우만

이 책의 저자인 의학 박사 데니스 윌슨 박사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황용해 굶주림을 억제하고 지방을 태워 근육을 형성하는 혁신적인 고강도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윌슨 박사는 지난 26년간 갑상선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갑상선 시스템, 신진 대사 및 체온의 중요한 관계성을 연구한 수천 명의 내과 의들의 수련을 도맡았다. 윌슨 박사는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기존의 접근법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좌절과 절망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윌슨 박사는 최신 의학 연구를 기반으로 단기간에 전략적으로 허기를 몰아 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과 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건강해질 수 있는 식단 계획을 고안해냈다. 그것이 바로 '페스터사이즈 (Fastercise)'이다.

저자는 우리의 체력과 잠재력을 증진시켜 더 크게는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전략을 제시한다. 윌슨 박사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한 비유를 통해 신체 에너지가 발휘되는 경로와 이 에너지가 어떻게 운동, 식단과 반응하는 지 설명한다. 또한 그는 기존의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 방법이 우리 몸의 우선 순위와 어떤 식으로 어긋나게 되었는지, 그 결과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밝힌다.

페스터사이즈는 시간대비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으로 신체에 강력한 신호를 보냄으로써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활용해 빠른 시간 내에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생성하는 운동법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페스터사이즈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 운동법의 가장 큰 장점은 허기를 느끼지 않고 지방을 태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지방을 태우고 미토콘드리아를 형성해 단 하루 몇 분 안에 근육을 자극하여 체내 지방은 더 적게 근육량은 더 증가하도록 만든다. 이 방법을 통해 몸의 체온이 올라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우리는 더 젊어 보이는 몸은 물론 향상된 집중력과 생산성, 학습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 능력을 약화 시켜 체내 염증은 줄이고 면역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저자는 이에 따라 우리의 호흡기의 건강과 체력을 활용한 운동 능력까지 향상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운동법을 통해서라면 저탄수화물이든 고 탄수화물이든 그 어떤 건강한

식이요법도 상관 없이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한 전략이란 그저 올바른 운동법을 선택하고 그에 걸맞은 건강한 식단대로 잘 먹는 것이다. 노련한 운동 선수, 피트니스 애호가, 운동을 싫어하거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까지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목차>

제1장. 신호 운동의 새로운 과학

제2장. 에너지에 관한 모든 것

제3장.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

제4장. 공복 상태

제5장. 올바른 균형 찾기

제6장. 빠르게 운동하는 법 최대한 활용하기

제7장. 빠르게 운동하는 법의 생리학

제8장. 음식의 기초

제9장. 식단 관리와 빠르게 운동하기

제10장. 빠르게 운동하는 법이 보장해주는 것들

<저자 소개>

의학전문 박사 데니스 윌슨 (Denis Wilson)은 세계적인 갑상선 전문의이며 『Wilson 's Temperature Syndrome』, 『Evidence-Based Approach to Restoring Thyroid Health』의 저자이다.

제목 : CHARISMATIC LEADERSHIP

가제 : 카리스마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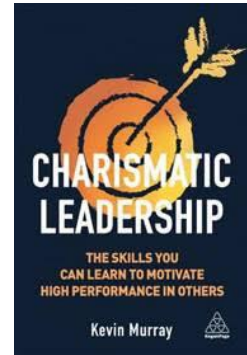
저자 : Kevin Murray

출판사: Kogan Page

발행일: 2020년 2월 25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경영



*** 오직 나의 매력을 돋보이기 위한 카리스마가 아닌 한 팀의 리더로서 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는 영향력 있는 카리스마를 습득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

카리스마란 무엇일까? 카리스마란 자신의 자질을 이용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는 오직 운 좋은 소수만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손쉽게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리더십 코치인 이 책의 저자 케빈 머레이는 이는 바로 우리 주변에 진정한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생겨난 통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애초부터 카리스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카리스마는 늘 사람들의 박수를 한 몸에 받는 인기의 비결이라거나 단순한 매력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카리스마란 오히려 나의 매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타인이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건실한 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카리스마는 누구든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가진 인식만 변화 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나를 통해 자신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카리스마를 가진 인재가 절실한 때이다. 저자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십이란 팀 내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 패턴을 전파하고 이 힘을 모아 최종 목표로 연결시키는 능력이다. 저자는 이러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는 자신의 팀 또한 카리스마를 가진 집단으로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또한 이 카리스마는 다시 다른 팀에, 더 나아가 고객과 기업의 성공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자는 이를 바로 ‘영향력 있는 카리스마’라고 부른다. 영향력 있는 카리스마를 실험해볼 무대는 소규모 팀에서부터 시작해 거대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영향력 있는 카리스마는 팀의 구성원들이 단순히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에 끌려 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열정을 동력 삼아 자신의 업무와 팀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만든다. 저자는 영향력 있는 카리스마는 매우 감정적인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를 자극하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바로 영향력 있는 카리스마를 개발하여 어떤 방식으로 내가 속한 팀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팀원들이 자발적인 노력의 단계를 훨씬 넘어서서 업무에 집중 할 수 있을 지 알려 주는 책이다. 여기서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마다 스스로 정의 하는 노력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팀원들의 생산성과 조직 헌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노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의 특징으로 진정성, 개인적인 역량, 온화함, 동력, 설득력 이 다섯 가지를 꼽고 있다. 이 책은 이 특징에 입각해 카리스마가 우리 뇌에 일으키는 신경화학적 작용과 경영행동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카리스마가 가진 힘이 어떻게 우리의 조직과 회사를 발전시키게 될 것인지 보여줄 것이다.

<목차>

제1부: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소개

제1장. 카리스마는 왜 필요한 것이며, 이 책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 당신은 카리스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 카리스마의 정의
- 카리스마의 다양한 종류들
- 카리스마 리더십의 특징과 기술
- 당신이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될 이야기들

제2장. 카리스마 리더들이 가진 다섯 가지 특징들

- 카리스마 리더십의 기술
- 통합 능력

제2부: 진정성

제3장.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부터 먼저 설정해야 훌륭한 경영인이 될 수 있다

- 신뢰 차이

제4장. 정직과 진실성을 연습하라

정직함이 존경심을 이긴다

제5장. 생생하고 개인적인 미션을 가져라

- 의제를 추진하겠다는 신념

(이하 생략, 총 6부 37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케빈 머레이 (Kevin Murray)는 40 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비즈니스 리더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며 베스트셀러인 『The Language of Leaders』, 『Communicate to Inspire – a leader's guide』의 저자이다.